

지역 소식 통

정읍시청 광장, 지역
자활 생산품 판매 ‘복작’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착한 소비’의 장이 16일 정읍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전북 6개 지역자활센터 소속 사업단과 자활기업들이 정성껏 만든 우수 생산품을 한자리에 선보인 ‘2025년 자활생산품 및 반려동물 시·군 순회장터’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을 이뤘다. 전북광역자활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제품의 판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터에는 생활용품·패브릭 공예품 같은 수제품부터 누룽지·생선구이·베이커리 등 맛갈스러운 먹거리까지 다채로운 상품이 판매됐다. 특히 울리는 반려동물 인구를 겨냥해 수제 간식과 습식 사료 등 펫용품도 처음 선보여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학생수마 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정읍시가 오는 22일까지 지역 초·중·고등학생 318명을 대상으로 ‘학생수마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 강습을 넘어,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동물과 교감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고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수마 지원사업’은 총 10회에 걸쳐 이론 수업부터 말과 친해지기, 말 끌기, 기초 승마까지 체계적인 강습으로 진행된다. 경험이 풍부한 ‘웨스턴프링스’에서 운영하며, 모든 참가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특히 시는 더 많은 학생의 참여를 위해 본인 부담금을 기존 30%(9만 6000원)에서 20%(6만 4000원)로 더욱 낮췄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 등 사회공익성 마 대상 학생은 전액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 고인들의 현재와 미래’

국제학술대회 개최, 국내·외 거석기념물의 최신 연구성과·보존관리 사례 공유

2025 세계유산축전-고창고인돌 깃발의 일환으로 고창군이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위원장 박현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소장 이규훈)와 함께 16일 오전 고창헬파크호텔에서 ‘세계유산 고창 고인들의 현재와 미래-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외 거석기념물의 최신 연구성과와 보존관리 사례를 함께 비교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영문 소장(동북아지석묘연구소)은 ‘고창 고인돌 유적의 세계사적 의의와 가치’의 기조강연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사시대 유적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고인돌 유적은 희귀성, 역사성 그리고 특수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등재 의미



를 가진다”며 “유적지 관리와 함께 전시공간과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지적욕구를 제공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 편안함과 친밀감이 있는 유적지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선 △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조사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정다운·박인영,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보존관리 현황과 향후 활용방안’(장중희,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 ‘영국 스톤헨지의 최신

조사연구 성과 및 보존관리 현황’(헤더스비어·잉글리쉬 헤리티지), △ 인도 우산들의 최신 조사연구 성과 및 보존관리 현황’(아룬 말릭, 인도 문화부 고고학연구소), △ ‘인도네시아 사부섬 고인돌의 최신 조사연구 성과 및 보존관리 현황’(탕가 아딧타 다출란, 인도네시아 가자마타대학교), △ ‘일본 오 유환상열석 거석기념물의 최신 조사연구 성과 및 보존관리 현황’(사이먼 케이니, 영국 세인즈버리 일본문화에술연구소) 등의 연구성과가 발표됐다. 이후에는 이영문 소장을 좌장으로, 조진선(전남대학교), 김규정(전북문화유산연구원), 고일홍(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윤호필(상주박물관), 윤덕항(前 전북대학교), 최완규(원광대학교) 등 거석기념물 전문가들과 발표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MP 확정

탄소중립 실현 향한 부안형 수소도시 청사진 완성

부안군은 1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경제산업국장, 관광복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전북테크노파크, 현대건설, ㈜유신 등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부안

군이 추진 중인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와의 연계하여 지역 내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주거단지 전기·열 공급, 수소 교통망 확장 등 통합형 수소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번 용역은 (주)현대건설과 (주)유신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했으며, 전북테크노파크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보고회에서는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수소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수소 기반 교통수단 확대, △주거단지 내 수소열 공급,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전북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및 부안 수전해 수소생산기지와의 연계 방안이 집중 논의되며, 지역 내 자립적 순환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은 새만금과 연계한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첨단 관수시스템’으로 사료작물 안정 생산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에도 고품질 사료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정읍에 도입돼 축산 농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16일, ‘가뭄대응 사료작물 안전재배 단지육성’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북면의 시범사업장에서 열린 이날 평가회에는 농업기술센터·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관계자와 지역 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



뭍 대응 기술이 적용된 목초지를 직접 둘러보고, 향후 기술 확산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에 맞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총사업비 1억 6000만원을 들여 2개 농가에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신 기술을 보급했다. 스프링클러 4대로 2ha에 달하는 넓은 목초지에 자동으로 물을 뿌리는 관수시스템과, 수분 20% 이내의 고품질 건조를 생산하는 열풍 건조기가 핵심이다. 특히 사업대상자인 손영수 농가는 ‘자유방목형 한우 동물복지’ 인증을 받고 100% 목초만으로 소를 키우는 선도 농가다.

/정읍=김대환 기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제안

부안군의회, 제365회 임시회 폐회... 20여건 안건 심의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조례안 등 20여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는 김광수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현기 의원이 선임되어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이끌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강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제안”을 주제로 참례된 골목경제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한수 의원은 “농어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교통여건이 불리한 농촌 지역의 소비를 책임지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지역화폐 사용제한을 완화하여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였으며, 박태수 의원은 “교통신용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무인단속장비의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박병래 의장은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청년정책 빛났다... 장관 표창’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2년 연속 수상 쾌거

부안군이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역청년 지원 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후원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지역청년 지원, 지방물가 안정 등 5개 분야에서 심사를 거쳐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부안군은 전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부안군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일자리 창출, 생활 안정 기반 강화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청년정책의 우수성과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부안군은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정



책 참여 등 다방면에서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전북 최초 ‘부안형 지역정착 청년일자리 사업’ △부산물 프로젝트, △청춘실심실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넓혔으며, △전국 최초 ‘근로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전북 최초 ‘청년 월세(주거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세계유산도시시기 아태지역 총회 참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베트남 후에사에서 개최한 ‘제5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OVHC-AP) 총회’에 참가하여 세계유산도시간 공감대 형성과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세계유산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주적합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7개국 15개 도시대표단, OVHC 본부 및 지역사무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첫날 개막식으로 시작한 이번 총회

는 아태지역사무처 활동 보고, 국제 학술 심포지엄, 회원 도시별 사례 및 정책 공유 등 각 세계유산도시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김영식 고창부군수는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지와 인근 매산마을의 공생프로젝트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 발표를 통해 고창의 세계유산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